

‘오늘은 책을 읽고 싶다’ 어느 지역 신문에 실린 서점광고 제목이다. 뽀뽀한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를 만끽하고 싶다는 부제가 돋보인다. 정보화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요즘, 정보화가 빠른 속도의 정보전달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전자정보만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도 있다.

중학생 독서량 10.3권, 고교생 독서량 7.7권으로 줄었다. 특히 국민들이 여가 시간에 책이나 신문, 잡지, 만화책 등 인쇄매체를 보는 경우가 21.9%인데 비해 TV, 비디오, 영화 등 영상매체를 보는 경우가 무려 47.7%나 되어 2배를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한해동안 한편의 책도 읽지 않은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성인이 자그마치 30%나 되고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 비독서층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과학도서...그 어려운 産苦

著述 · 출판인들의 주름살 펴지는 날은...

지난 한해동안 한편의 책도 읽지 않은 20세 이상의 성인이 30%나 되고, 50대 이상의 절반이 비독서층이라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독서인구 감소추세 속에서 과학도서를 얼마나 읽을까에 생각이 미치면 더욱 실망하게 된다.

1개월에 한 두번은 시내 서점에 들러 책을 고르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책이나 코너가 무엇인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다. 독자의 입장에서 좋은 책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고 진한 감동을 받은 책은 가족에게 읽기를 권하고 이웃과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어 읽게 하는 것도 고상한 취미에 속한다 하겠다. 그러나 책을 저술하는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되도록 많은 독자들이 자기 저서를 읽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항상 깃들여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성년 한사람의 1년 독서량이 평균 9.5권이라고 하는데 각자 자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 숫자보다 적다고 느낀 경우도 많을 것이다.

1년 독서량 평균 9.5권

책의 해였던 93년에 비해 책을 적게 읽은 것으로 나타난 지난해 국민학교 학생 평균 독서량이 24.5권인데 반해

이러한 독서인구 감소 추세하에서 그나마 과학도서를 얼마나 읽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면 더욱 실망하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재미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부 과학도서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남의 책을 읽는데 시간을 아끼지 말라. 남이 고생한 것에 의해 쉽게 자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고 발명왕 에디슨도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는 “독서는 끝없는 정보의 샘”이라고 갈파하면서 자신은 평일 밤에 한시간 이상, 주말에 몇시간 정도는 반드시 독서를 한다는 것이다. 생물공학, 진화, 두뇌, DNA에 관심이 많고 경제학에 관한 책도 즐겨 읽는다는 빌 게이츠는 책이 가장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학도서 출판 토양 가뭄아

과학도서를 저술하면서 그 때마다 느



朴澤奎

(건국대 화학과 교수/본지 편집위원장)

기는 것은 알기 쉽고 흥미있게 서술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이다.

3년전 타계한 아이작 아시모프는 교양 공상과학분야에서 금세기 최고의 작가로 추앙을 받는데 50년간 무려 4백60여권의 과학도서를 집필하였다. 자연과학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많은 책을 내놓았는데 국내에서도 48권이 번역 출판되었다.

필자도 그의 지구과학·화학, 생물학 등 관련도서를 공동 번역한 바 있는데 그의 해박한 지식, 평이한 문장, 그리고 과학이론을 정확하게 파악, 쉬운 비유와 예를 인용하면서 서술하는 천재적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독자들에게 무한한 과학적 상상력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면서 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아시모프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였고 28세때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보스턴대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그후 본격적으로 저술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임한 철저한 과학계몽저술가였다.

아시모프가 이러한 방대한 저술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우선 그의 집필능력과 이러한 과학계몽도서들이 계속 출간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고 특히 과학도서의 독서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내용이 쉽고 흥미있으며 그 내용이 알찬 책이라 해도 읽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햇빛을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우리나라 과학도서출판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뒷전으로 밀리는 과학도서

과학지식의 대중화, 과학의 생활화로써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기획 진행되었던 현대과학신서가 문고판으로 첫발을 디딘 것이 1973년이었는데 필자의 역서 「과학사의 뒷얘기 I 화학」이 5번의 번호를 달고 출간되었으나 실제로 이 책은 1973년 2월25일 현대과학신서 1호로 태어났던 것이다.

당시의 정가가 2백80원이었고 80년대 7판부터 1천2백원, 1994년 14판의 값이 3천원이다. 20년 동안 가격이 20배 오르고 14판이 거듭되었으니 외형으로는 장기적인 스테디셀러의 위치를 고수한 책이라고 자부할 만도 하다.

그런데 14판을 거듭한 오늘날 이 문고판 과학도서가 몇 부나 인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흔히 중판인 경우 2천부 정도가 고작이고 때로는 1천부를 인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꾸준히 판을 거듭해도 20년 동안 2만부 내외가 될 것이다. 그 인쇄(印稅)라는데 얼마나 될까? 20년간의 인쇄가 기백만원도 안된다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과학도서를 저술하는 사람, 이 도서를 출판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할 만한 대목이 되겠다.

수년전 물리학분야의 교양과학도서가 장안의 독서계에 화제를 불러 일으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켰고 최근 만화를 결집인 과학도서들이 널리 읽히는 등 반가운 출판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분야인 환경문제, 생태계보존, 깨끗한 물문제, 생명공학의 윤리성문제 등을 다룬 교양과학도서들이 다량 간행되고 있으며 대형

서점에서는 교양과학도서 진열대가 눈에 잘 띄는 곳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신문의 신간안내란에서는 문학, 인문, 사회, 경영, 기타의 순서로 소개되고 과학도서는 끝부분을 차지하거나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널리 읽히도록 지원해야

교양과학도서를 저술한다는 것은 저자 자신으로는 전공분야도서를 저술하는 것보다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출판사의 입장에서도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과학도서 저술인이나 출판인들은 모두 사명감이 있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이러한 작업을 숙명처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서가에 꽂혀 보지도 못하고 폐기되는 도서가 연간 3천만권이 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나마 절판되지 않고 20여년 이상 꾸준히 중판을 거듭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책을 저술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을 수반하는 피눈물나는 작업이다. 하나의 도서가 햇빛을 보기까지 쏟아부은 저자의 노력과 정성, 그리고 출판사의 헌신적인 기여는 이 시대를 밝히는 햇불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직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과학도서 출판에 참여하고 있는 저술인, 출판인들에게 애정어린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고 그들의 각고의 산물인 과학도서가 널리 읽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㉟